

지역축제 정착화 과정에서의 콘텐츠 변화양상 -나주 영산강문화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Contents Change Aspect on Fixing Process of Local Festival Case of the Yeongsangang Culture Festival in Naju

임은미
(주)여가누리 연구위원

Eun Mi Lim(btlimem@hanmail.net)

요약

과거 10여년 동안 한국의 지역축제는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해 왔다. 그리고 축제를 기획하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에 의해 지역축제의 문제점 또한 많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한 시점에 근거한 문제점 제시에 그치고 있다. 한편,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들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역사적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해 정착단계에 맞이고 있다. 그만큼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나주 영산강문화축제를 사례로 지역의 대표축제로서의 정착화 과정에서의 축제 콘텐츠 변화양상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광범위한 주제설정으로 인한 축제소재의 불명확성이 축제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중심어 : | 지역축제 | 정착화 과정 | 축제 콘텐츠 | 문화관광축제 |

Abstract

Korean local festival had grown rapidly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or past 10 year. And also problems of domestic local festival had been indicated much by specialists and researchers who plan festival. But most precedent researches are stopping in problem presentation that is based in one point of time. In the meantime, most the very best culture tourism festivals are meeting fixing step through trial and error in historic process more than 10 years. It is important to solve fundamental problem that understand process so much. This research analyzed festival contents change aspect on fixing process as local representative festival by time-series analys, Yeongsangang culture festival to example. By the result, the biggest problem is that unclerness of festival subject by wide festival theme establishment is connected by losing festival's identity.

■ keyword : | Local Festival | Fixing Process | Festival Contents | Culture Tourism Festival |

I. 서론

1990년대 이후 지역축제가 급증하여 약 1,000여개에

이르고 있을 만큼 관광산업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인 것 중의 하나가 지역축제다. 이렇게 지역축제가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1992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자

치단체장의 주민 직접선거제와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육성정책의 영향이 크다. 4년마다 주민평가를 받아 재임여부가 결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지역축제는 좋은 수단이 되었으며, 몇몇 축제들이 지역발전을 이끈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지역축제 육성을 주요정책의 하나로 선택했다[1]. 이와 더불어 1995년 '이천 도자기축제'와 '금산 인삼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한 이후 2009년 현재까지 60개의 문화관광축제를 지정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괄목할 만한 지역축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또한 많이 생겼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자세로 인해 축제를 성과중심으로 이끌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고[2], 지원예산의 균등배분방식과 일괄적인 평가기준, 지역축제의 관광 및 지역 활성화 측면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지역축제의 고유성과 문화적 가치 상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3].

한국 지역축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축제현황, 축제평가, 축제 구성요소 분석, 관광상품 및 이벤트 관점에서의 축제연구, 지역문화 정체성 표현으로서의 축제연구, 지역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축제연구 등으로 분류된다[2]. 대부분 지역축제의 성과 및 평가 등 결과중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많은 반면, 지역축제가 그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변화양상에 중점을 둔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 5회째를 맞이한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를 사례로 5년간의 축제 콘텐츠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와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잡아가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5년간의 영산강 문화축제 기획서와 축제평가서 등에 기초한 문헌연구 및 참여관찰, 관계자 인터뷰조사 등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¹⁾.

II. 지역축제 현황 및 특징

1. 한국의 지역축제 현황

한국의 지역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176개[3], 2009년 942개[4]로 집계되었다. 2006년 자료기준 개최시작년도별(5년단위)로 1970년대 이전에 30개 이하, 1980년대 100개 이하였던 것이 1990년대 전반 5년간 150개, 후반 5년간 358개로 급증하여 2000년대 전반 5년간에는 394개가 개최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83개(서울 87, 인천 44, 경기 152), 강원 124개, 충청 171개(대전 15, 충북 68, 충남 88), 영남 340개(부산 83, 대구 28, 울산 19, 경북 101, 경남 109), 호남 207개(광주 26, 전북 76, 전남 105), 제주 51개로 영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도권,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순이었다.

소재별 축제유형은 관광축제(지역특산, 음식문화 포함) 427개, 예술문화축제(조형물, 문화산업 포함) 273개, 전통축제(전통민속, 역사, 인물 축제 포함) 222개, 자연환경축제 31개, 주민통합축제 20개(화합, 추모·염원 축제 포함), 종합형축제 103개, 기타 93개로 관광축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계절별 개최시기는 봄(3~5월) 426개, 여름(6~8월) 236개, 가을(9~11월) 486개, 겨울(12~2월) 114개로 가을, 봄, 여름, 겨울 순으로 많았으며, 예산규모는 1억원 미만이 458개(38.9%)로 가장 많았고, 1~3억원 미만 244개(20.7%), 3~5억원 미만 78개(6.7%), 5~10억원 미만 68개(5.8%), 10억원 이상 24개(2.0%) 순이었다.

2.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특징

문화관광축제는 외래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지원·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해 오고 있다. 1996년 8개를 지정, 매년 확대시켜 2009년에는 37개를 선정, 지금까지 총 60개에 이르고 있다[그림1][4][5].

¹⁾ 본 연구자는 2006~2008년 나주 영산강문화축제에 축제발전 포럼 및 워크숍 등을 비롯하여 전문가평가위원, 축제평가단장으로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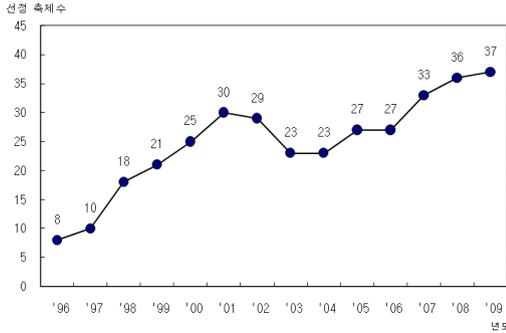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문화관광축제 선정 추이('96~' 09년)

표 1. 문화관광축제 선정횟수 현황('96~' 09년)

선정 횟수	갯수	축제명(선정연도)
14	2	금산인삼축제, 부산자갈치축제('96~' 09)
13	3	강진청자문화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97~' 09) / 광주김치대축제('96, '98~' 09)
12	8	경주한국의술과떡잔치, 보령머드축제, 양양송이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한산모시문화제('98~' 09) / 남원춘향제('97, '99~' 09) /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구. 영등제: '96~' 04, '07~' 09)
11	1	무주반딧불축제('99~' 09)
10	1	하동야생차문화축제('00~' 09)
9	3	김제지평선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풍기인삼축제('01~' 09)
8	1	강경젓갈축제('02~' 09)
7	3	남도음식문화큰잔치('97~' 98, '05~' 09), 대구약령시축제('01~' 07), 함평나비축제('03~' 09)
6	3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04~' 09) /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01~' 02, '06~' 09)
5	6	연천구석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인재빙어축제('05~' 09) / 영암왕인문화축제('99~' 03) / 이천도자기축제('96~' 00) / 통영나전칠기축제('98~' 02)
4	2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00~' 03) / 청도소싸움축제('99~' 02)
3	9	고성공룡나라축제('00~' 02) / 문경차사발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천안홍타령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화천산천어축제('07~' 09) / 익산보석축제('99~' 01) / 제주한라산노꽃축제('98, '00~' 01) / 평창대관령노꽃축제('99~' 01)
2	6	무안연꽃축제('01~' 02) / 봉화송이축제, 산청지리산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08~' 09) / 수원화성문화제('96, '01) / 여주도자기축제('99~' 00)
1	12	강릉단오제('97) / 강화고인돌축제('98) / 기장멸치축제('02) / 담양대나무축제('08) / 백제문화제('97) / 보성다향제('05) / 세계태권도문화축제('02) / 완도장보고축제('96) / 울산외고산옹기축제, 자라섬국제제페스티벌('09) / 정읍내장산단풍축제('98) / 춘천인형극제('96)

자료: 문화관광부(2007),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참조 작성

1996~2009년 14년간 매년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금산 인삼축제와 부산 자갈치축제 2개이다. 10회 이상 선정된 축제는 15개로 강진 청자문화제,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광주 김치대축제가 13회, 경주 한국의 술과떡 잔치, 보령 머드축제, 양양 송이축제, 영동 난계국악 축제, 충주 세계무술축제, 한산 모시문화제, 남원 춘향제,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구. 진도 영등제)가 12회, 무주 반딧불축제 11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가 10회 선정되었다[표 1].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10개, 부산·울산·경남 9개, 강원도와 대전·충남 각각 8개, 경기 7개, 전북 5개, 충북과 제주 각각 3개 순이었다. 개최시기는 10월이 17개로 가장 많았으며, 5월 13개, 9월 8개, 8월 6개 순이었고 나머지 달에는 1~4개 수준으로 주로 9~10월, 4~5월에 집중 개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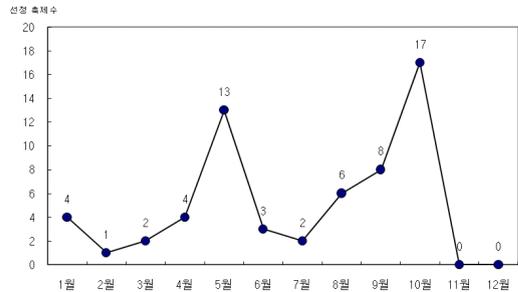


그림 2. 월별 문화관광축제 개최현황

3.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의 콘텐츠 특징

2000년 이후부터 문화관광축제 중에서도 최우수, 우수, 유망 축제 등으로 구분·선정하고 있는데, 최우수축제(2007, 2008년 대표축제 포함)로 선정된 축제는 총 11개이다[표 2][표 3].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이 10회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으며, 강진 청자문화제 9회, 금산 인삼축제 6회, 김제 지평선축제 5회, 보령 머드축제와 진주 남강유등축제 각 4회, 춘천 마임축제 3회, 양양 송이 축제와 함평 나비축제 각 2회, 천안 홍타령축제가 1회 선정되었다. 최우수축제로 선정시 연간 1~3.6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보령 머드축제는 2007년부터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연간 8억원씩 지원받고 있다.

표 2.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선정현황('00~' 09년)

년도	갯수	축제명
'00	1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01~'04	매년 3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강진청자문화제, 금산인삼축제
'05	3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강진청자문화제, 김제지평선축제
'06	5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강진청자문화제, 김제지평선축제,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07	7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강진청자문화제, 김제지평선축제,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춘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08	9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대표축제), 보령머드축제(대표축제), 강진청자문화제, 김제지평선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춘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금산인삼축제, 함평나비축제
'09	10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대표축제), 보령머드축제(대표축제), 강진청자문화제, 김제지평선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춘천마임축제, 금산인삼축제, 함평나비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천안홍타령축제

자료: 문화관광부(2007),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참조 작성

최우수축제의 세부 콘텐츠 특징을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먼저, 축제의 역사성 차원에서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기준 20회 이상 된 축제는 금산 인삼축제(29회)와 춘천 마임축제(21회) 2개이다. 10년 이상된 축제는 7개로 강진 청자문화제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14회,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양양 송이축제 13회, 보령 머드축제 12회, 김제 지평선 축제와 함평 나비축제가 11회를 맞이하고 있다. 10회 미만으로는 진주 남강유등축제 8회, 천안 홍타령축제 7회이다.

개최시기는 9~10월 6개(금산 인삼축제, 천안 홍타령 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양양 송이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4~5월 3개(함평 나비축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춘천 마임축제), 7~8월 2개(보령 머드축제, 강진 청자문화제) 순이다.

개최기간은 가장 짧은 경우가 5일로 김제 지평선축제, 양양 송이축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천안 홍타령 축제 4개가 해당된다. 나머지는 8일 이상으로 춘천 마임축제 8일, 강진 청자문화제와 보령 머드축제 9일,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금산 인삼축제 10일, 진주 남강유등축제 12일이었으며, 함평 나비축제가 17일간으로 가장 길었다.

축제유형은 지역특산물축제가 4개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축제 3개, 지역특성축제 2개, 자연환경축제와 역사인물축제가 각각 1개씩이다. 지역특산물축제의 경우 청자, 인삼, 송이버섯, 녹차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축제는 탈춤, 마임, 춤을, 지역특성축제는 머드, 농경문화를, 자연환경축제는 나비·곤충을, 역사인물축제인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임진왜란 진주대첩을 이끈 김시민 장군과 남강에 띄워뒀던 유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축제소재는 함평 나비축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지역의 특산물이나 특성에 기반하고 있어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과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나비' 아이টে을 도입, 새롭게 창조하여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축제 프로그램은 농특산품을 소재로 한 금산 인삼축제와 양양 송이축제를 제외하면 대체로 주제관련 프로그램 비중이 높아(61.8%: 금산인삼축제, 양양송이축제 제외시 68.5%) 축제의 성격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부대행사는 프로그램의 다채로움 내지는 풍성함의 이미지 창출 차원에서 마련되어 지역 산업 및 전통 관련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있다.

축제장소는 문화예술축제(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춘천 마임축제, 천안 홍타령축제)의 경우 시내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는 매년 지정된 일정 장소나 축제관련 시설물이 설치된 한두 곳에서 집중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 운영주체는 대부분 시·군 관 주도형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산 인삼축제는 '금산인삼선양위원회', 춘천 마임축제는 (사)춘천마임축제와 한국마임협회, 춘천 MBC 공동의 민간주도형으로 이루어졌다. 축제 주관은 대부분이 축제조직위원회나 축제추진위원회, 축제집행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표 3.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주요 콘텐츠 현황

축제명	선정 횟수	'09년 개최 회차	'09년 개최 시기(기간)	축제유형 (소재)	프로그램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0회	13회	9/25~10/4 (10일간)	문화예술축제(탈춤)	주제관련 60개: 46.9% (전시관람 18개) 부대행사 68개
강진청자	9회	14회	8/8~16	지역특산물	주제관련 28개: 60.9%

문화제	회(3회)	(9일간)	축제(청자)	(전시관람 7개) 부대행사 18개
금산인삼 축제	6회	29회	9/18~27 (10일간)	지역특산물 축제(인삼) 주제관련 10개: 28.6% (전시관람 3개) 부대행사 25개
김제지명 선축제	5회	11회	10/9~13 (5일간)	지역특성축제(벽골제도 작농경문화) 주제관련 51개: 68.0% (전시관람 7개) 부대행사 24개
보령머드 축제	4회	12회	7/11~19 (9일간)	지역특성축제(머드) 주제관련 45개: 78.9% (전시관람 9개) 부대행사 12개
진주남강 유등축제	4회	8회	10/1~12 (12일간)	역사인물축제(유등) 주제관련 34개: 70.8% (전시관람 24개) 부대행사 14개
춘천마임 축제	3회	21회	5/24~31 (8일간)	문화예술축제(마임) 주제관련 30개: 100% (전시관람 -) 부대행사 -
양양송이 축제	2회	13회	9/25~29 (5일간)	지역특산물 축제(송이버섯) 주제관련 18개: 34.6% (전시관람 2개) 부대행사 34개
함평나비 축제	2회	11회	4/24~5/10 (17일간)	자연환경축제(나비곤충) 주제관련 22개: 51.2% (전시관람 19개) 부대행사 21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1회	14회	5/1~5 (5일간)	지역특산물 축제(녹차) 주제관련 52개: 85.2% (전시관람 6개) 부대행사 9개
천안흥타령축제	1회	7회	9/23~27 (5일간)	문화예술축제(춤) 주제관련 13개: 54.2% (전시관람 -) 부대행사 11개

자료: 각 축제별 홈페이지 참조 작성

III. 나주 영산강문화축제의 콘텐츠 변화양상

1. 나주 영산강문화축제의 개최배경

전남 나주시는 영산강 고대문화의 중심지이자 '전라도'가 전북 전주와 전남 나주를 가리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개국 이후 천여년 동안 조선시대 대표적 지방행정단위인 목(牧)으로서 호남의 중심지였었다.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로서 마한시대 반남고분군과 삼국시대 북암리고분군 등의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나주읍성권에는 고려 태조 왕건이 둘째부인 장화왕후를 처음 만난 곳인 완사천, 천년 목사고을 유적지 금성관 및 나주목사내아, 나주향교, 동점문, 남고문, 정수루, 그리고 칠천리 석불입상, 불회사 대웅전, 심향사, 죽림

사, 운흥사 등의 문화재와 사적, 보물 등 문화자원이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 외에도 한글창제에 공헌한 신숙주, 거북선을 제작한 나대용, 천재시인 임제 등 역사적 인물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또한, 나주평야로 상징되는 농경문화 발달지로서 나주배, 나주쌀, 영산포홍어, 토하젓 등의 농수산물이 유명하며, 나주셋골나이, 나주소반장, 천연염색 등의 무형문화재와 삼한지테마파크 등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6].

이렇듯 호남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도시로서의 나주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역사·문화·관광 거점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나주시는 2004년부터 '영산강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08년 5회제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영산강문화축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개최해 왔던 배꽃축제나 영산포 홍어축제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등의 갈등단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5년째 영산강문화축제를 개최해 오면서 변화되어 온 축제 콘텐츠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앞서 분석한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나주시 대표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영산강문화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나주 영산강문화축제의 콘텐츠 변화양상

나주 영산강문화축제는 2004년 '영산강 역사문화축제'로 처음 개최되었다. 나주시와 나주시의회가 주최, 나주시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2004년 제 1회 축제기획은 (사)한국예총나주시지회와 (사)한국연예협회나주시지부 및 니즈커뮤니케이션즈에서 시행하였다. 제 2회째부터는 나주시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문단, 평가단,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매년 축제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축제 기획안 수립 및 축제진행을 맡아 추진해 오고 있다.

기본 전개방향은 기존의 타 지역축제와 같은 단발성 프로그램 의존의 축제가 아닌, 지속적인 역사적 상징과 나주의 2천년 역사를 통합적으로 어필함으로써 지역민

의 자부심을 표현하고자 했다. 영산강의 통합적 의미로서의 ‘생명의 강’을 콘셉트로 ‘영산강 문화 클러스터’라는 주제 하에 ‘역사의 강: 역사와 진실’, ‘풍요의 강: 농부와 어부’, ‘만물의 강: 정열과 협력’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구성하였다[7].

축제명은 2004년 ‘영산강 역사문화축제’, 2005, 2006년 ‘영산강문화축제’, 2007, 2008년 ‘나주 영산강문화축제’로 약간씩 변경되어 왔다. 축제명 앞에는 개최횟수를 표기하지 않고 개최년도만 표기함으로써 축제의 역사가 짧음을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개최시기는 매년 10월 중순이후에 개최하였으며, 개최기간은 주말포함 3~5일간으로 2004년 5일, 2005, 2006년 4일, 2007년에는 다시 5일간으로 진행되다가, 2008년에는 축제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 3일간으로 축소 진행하였다.

개최장소는 2004년에는 영산강둔치 체육공원을 메인으로 하고 마한추수감사제인 ‘소도제’만 반남고분군에서 개최하다가, 2005년에는 영산강둔치 체육공원과 나주시가지 및 지정 배농장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영산강변에서 진행하다보니 나주시내에 있는 금성관 등의 문화자원 및 상권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2006년부터는 영산강변을 제외하고 금성관, 동점문, 나주목사내아, 나주향교 등 나주읍성권에서만 개최하였다. 그 결과 2004, 2005년 영산강변에서 개최할 때보다는 나주시내의 문화자원 및 지역상권 연계 차원에서 효과적이라는 평가는 있었으나, 나주시 전역에서 분산개최하다보니 동선 불편에 대한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2007, 2008년에는 금성관 주변으로 행사장을 집중배치하게 되었다. 다만, 2007년의 경우 사전행사로서 첫째날 마한추수감사제인 ‘소도제’만 반남고분군에서 개최하였다.

축제 주제 및 슬로건 또한 매년 약간씩 변경되었다. 2004년 ‘생명의 강: 영산강 문화 클러스터’로 시작하여, 2005, 2006년에는 ‘보고, 배우고, 느끼는(즐기는) 영산강 문화 36.5℃’라는 주제와 ‘나주로 떠나는 2천년의 시간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였다. 2007년 주제는 ‘살아숨쉬는 2천년의 역사박물관’, 슬로건은 ‘보고, 배우고, 나누는 역사체험 페스티벌’로 진행하였다. 2008년에는

‘영산강, 내 안에 흐르는 역사의 힘!’으로 주제와 슬로건을 통합 진행하였다. 5년간 축제의 주제 및 슬로건은 매년 약간씩 변동되어 왔으나, 그 내용 면에서 보면 결국 ‘영산강변 중심도시 나주의 역사와 농경문화 체험 축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나주 영산강문화축제의 주요 내용 변화양상

년도	축제명	기간	장소	주제/슬로건	프로그램 수
2004 (1회)	2004 영산강 역사문화축제	10. 29 (금) ~ 11. 2 (화) / 5일간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반남고분군	생명의 강 - "영산강 문화 클러스터"	37개: 기획11, 공연8, 경연7, 전시/체험6, 부대4 ※ 주제관련 22개 (59.5%)
2005 (2회)	2005 영산강 문화축제	10. 13 (목) ~ 16 (일) / 4일간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완사천, 나주시내, 지정배농장	보고, 배우고, 느끼는 영산강문화 36.5℃ / 나주로 떠나는 2천년의 시간여행	37개: 기획8, 공연10, 경연5, 전시/체험11, 부대3 ※ 주제관련 18개 (48.6%)
2006 (3회)	2006 영산강 문화축제	10. 19 (수목) ~ 22 (일) / 4일간	금성관주변 (나주읍성권)	보고, 배우고, 즐기는 영산강문화 36.5℃ / 나주로 떠나는 2천년의 시간여행	36개: 기획9, 공연9, 경연7, 전시/체험9, 부대3 ※ 주제관련 17개 (47.2%)
2007 (4회)	2007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	10. 24 (수) ~ 28 (일) / 5일간	금성관주변 (나주읍성권), 반남고분군	살아숨쉬는 2천년의 역사박물관 / 보고, 배우고, 나누는 역사체험 페스티벌	42개: 기획9, 공연12, 경연8, 전시/체험9, 부대4 ※ 주제관련 20개 (47.6%)
2008 (5회)	2008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	10. 24 (금) ~ 26 (일) / 3일간	금성관주변	영산강, 내 안에 흐르는 역사의 힘!	33개: 기획4, 공연10, 경연6, 전시/체험8, 부대5 ※ 주제관련 16개 (48.5%)

자료: 영산강문화축제 홍보물, 축제 기획 및 평가 관련 자료 참조 작성

프로그램 수는 2004~2006년에는 36~37개, 2007년에는 42개가 진행되다가 2008년에는 33개로 축소되었다. 영산강과 나주의 역사, 농경문화 등 주제관련 프로그램은 매년 17~22개 수준으로 50.3%(2004년 제외시 48.0%)였으며, 주로 기획행사, 공연행사, 전시·체험행사가 많았으며, 영산강변 마한문화, 나주평야 농경문화와 고려 태조 왕건의 둘째부인 장화왕후 배출지로서의 어항, 조선시대 지방행정 중심지 목사골이라는 역사적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주의 역사적 인물 관련 프로그램, 농경문화 및 무형문화제 체험 프로그램

이 전시·체험행사로 진행되었으며, 경연행사, 부대행사의 대부분은 어느 지역축제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고 있었다.

매년 5회째 지속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12개로 이중 주제와 관련해서는 개·폐막식포함 7개였으나, 주로 무형문화재, 농경문화,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본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본 축제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메인 프로그램은 대부분 3~4회째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8개에 지나지 않았다. 왕건·장화왕후 혼례식, 마한소도제, 나주목사 부임행차 퍼레이드, 나주목 수문장 교대식 등의 기획행사 7개와, 전국 백호(임제) 가족즐거기기/그림그리기대회 등의 경진행사가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수는 많았지만 주제관련 프로그램 비중이 낮아 고유의 이미지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평가체계는 2005년부터 평가단을 구성, 방문객 설문 조사와 전문가평가가 이루어졌다. 주요 평가내용은 '영산강문화'라는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 부재의 문제점이 매년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05년에는 영산강변 축제장소의 비효율성, 2006년에는 나주시내 여러 장소에 분산개최로 인한 동선 및 주차장 이용의 불편함, 2007, 2008년에는 축제 주제 및 이미지 전달 면에서의 불명확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방문객 구성은 나주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주민이 주를 이루고 있어(2008년 나주 51%를 포함 광주·전남지역 84%) 지역중심의 주민화합축제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방문객 편의성 및 독창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선호 프로그램으로는 나주목사 부임행차 퍼레이드, 나주목사 모의재판과 도자기, 전통공예, 천연염색, 농경문화 등의 생활문화 체험행사가 꼽혔다. 불편사항으로는 주차·교통 혼잡, 안내체계 미흡, 휴식공간 부족, 화장실 불편 등이 매년 꼽혔다.

표 5. 나주 영산강문화축제 프로그램 콘텐츠 변화양상

프로그램		'04	'05	'06	'07	'08
기획행사	왕건·장화왕후 혼례 재현	●	●	●	●	
	마한추수감사 '소도제' 재현	●	●	●	●	
	나주목사 부임행차 퍼레이드		●	●	●	●
	나주목 수문장 교대식			●	●	●
	나주목사 모의재판				●	●
	특강: 도올김응옥(정도전과 역사의 고향 나주), 시인 김지하 특강	●				
	나주 고분역사 투어	●				
	고구려사 특별부스전 → ('07)찾아가는 박물관	●				●
	읍면대항 농부 Out door game: 장작때기 등	●				
	광주학생운동 진원기념 인라인 페스티벌	●				
	영산강 역사시계: 2천년 역사의 영산강	●				
	영산강 희망황포돛배 → ('08)황포돛배타기	●				●
	나주 문화미로찾기	●				
	영산강 유아용 토타카트	●				
	천연염색패션쇼			●	●	●
	전국 내대용 거북선 창작모형R/C경진대회			●	●	●
	사랑의 '소망배' 보내기→('07)사랑나눔 배설 나누기			●	●	●
	나주염원 '쪽배' 및 '연' 띄우기			●		
	우리농산물 사랑이벤트 '삼색가래떡' 만들기			●		
	한글축제 신속주 '우리말퀴즈대회'				●	
대중행사	장화왕후 창작극 → ('08) 창작오페라 장화왕후	●				●
	역사맞이 국과퍼포먼스: 가장행렬, 흥어/젓갈배맞이	●				
	개막식축하공연	●	●	●	●	●
	나주 동서부 줄다리기	○	○		○	
	추수감사잔치	●				
	폐막식: 대동한마당놀이 '집단신명'	●	●	●	●	●
	바디페인팅쇼→('05)나주명물그리기:칼라 코디네이트, 페이스페인팅→('08)인간인형 메이크업퍼포먼스	○	○	○	○	○
	시립삼현육각공연 국악한마당		○	○	○	○
	구전민요: 팔도각설이타령		○	○	○	○
	마당놀이 '놀부전' → ('05)퍼포먼스마당극 '의병장김천일'→('08)마당극 '밥이 지일이어'	○	●	●	●	○
	영산강 락페스티벌 → ('05)청소년페스티벌	○	○	○	○	○
	국악콘서트		○	○	○	
	난타공연		○			
	전통무예공연			○	○	
	주몽명장면 갈라공연				●	
째즈팝 미니콘서트				○		
나주틀노래 시연					●	
평양예술단 공연					○	
전통행사	시장배 어린이 장기대회 → ('06)어린이 한마당	○		○	○	○
	천년의 아침을 깨워라: 퀴즈, 청소년음악/댄스경연	○				
	농악경연대회 → ('07)풍물놀이경연대회			○	○	○
	뉴스대회	○				
	전통음식경연대회	○				
쌀브랜드 홍보: 카레이스대회	●					

프로그램		'04	'05	'06	'07	'08
전행행사	댄싱페스티벌	○				
	영산강가요제	○	○	○	○	○
	전국백호(임제)가족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	●	●	●
	영산강 전국전래동요부르기대회		○	○	○	○
	읍면동 생활체조경연대회		○	○	○	○
	외국인주부 노래경연			○	○	
	우리동네 빵 '별난사람 별난재주'				○	
국악경연대회					○	
전시·체험행사	무형문화재체험:셋골나이, 짚풀공예, 천연염색 등	●	●	●	●	●
	전통문화체험:도예, 탁본, 가훈씨주기, 자생차 등		○	○	○	○
	역사문화체험:해종 '어가' 타기, 학교유생 체험 등	●	●	●	●	●
	나주음식명가전 → ('06)나주전통음식체험	●	●	●	●	●
	농경문화체험: 농기구, 농/특산물, 원예, 민속놀이	●	●	●	●	●
	어린이동물농장	○				
	농촌노인무료건강검진 → ('05)무료건강캠프	○	○	○	○	○
	팔도성씨올림픽관 → (2006)팔도성씨박람회		○	○	○	
	나주명물사진전시회: 나주배꽃, 유채꽃, 역사, 풍물 등		○	○	○	
	수석전시회		○			
	김원기와 함께 뛰는 영산강마라톤		●			
	배따기체험		●			
	특별기획전 환경전시전			○		
나주혁신도시홍보관				○	○	
나주관광홍보관, 동신대홍보관, 나주대홍보관					○	
부대행사	나도 역사의 주인공: 포토존→('08)관광사진포토존	●				●
	난장(저자거리) 체험	○				
	어린이관(Kids관)	○				
	농특산물 전시, 판매전: 향토·관내기업 전시 판매관	○	○	○	○	○
	나주배 품평회					○
	외국인주부 모국관		○	○	○	○
	다문화가정 '월드쇼'					○
	영산강 역사문화 포럼		●			
	세계민속품물벼룩시장			○		
	상소문 이벤트				●	
나주목 도보여행 스탬프찍기				●		

주: ●는 주제관련 프로그램
 자료: 영산강문화축제 홍보물, 축제 기획서 및 평가서 관련 나주시 내부자료 참조 작성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06)마한소도제, ('08)나주목사부임행차 퍼레이드, ('08)금성관 중앙무대와 전통문화 체험부스, ('08)나주배밭

사진 1. 나주 영산강문화축제 주요 프로그램 이미지

3.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와의 비교·시사점

나주 영산강문화축제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를 비교 시 가장 큰 차이점은 주제의 명확성 문제이다. 이는 축제유형에서도 잘 드러난다.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중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축제(3개)와 역사인물축제(1개)는 존재하고 있지만, 영산강문화축제와 같이 광범위한 개념의 역사문화축제는 없다.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탈춤(안동), 인삼(금산), 청자(강진), 마임(춘천), 머드(보령), 나비(함평) 등 축제 소재에 대한 이미지가 명확히 전달되고 있는 반면, 영산강문화축제의 경우 '영산강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축제의 이미지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 나주시민에게는 영산강과 나주의 역사·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어느 정도 이미지가 전달될지는 모르나, 외국인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나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와 문화를 포함시킴으로써 너무 많은 콘텐츠를 하나의 축제에서 전달하려고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는 축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5년째 축제를 진행해 오면서 매년 지적되었던 만큼 근본적으로 축제의 주제 및 소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개최시기, 개최기간, 개최장소, 주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매년 거의 고정

적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에게 축제의 이미지 및 콘텐츠 전달이 용이한 반면, 영산강문화축제의 경우 상기 각 항목들이 매년 조금씩 변경되어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축제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최시기 면에서는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중 반이상이 9~10월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기에 개최되는 영산강문화축제가 기존의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와의 차별화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최기간을 보면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대부분 8일 이상 시행되고 있는 반면, 영산강문화축제는 3~5일간 진행되고 있어 소규모 축제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여기에는 아직 영산강문화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지 못한 관계로 정부의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또한, 축제장소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춘천 마임축제, 천안 홍타령축제와 같은 문화예술축제는 시내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분산 개최하면서 시 전체에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축제는 매년 고정된 장소에서 집중 개최되고 있다. 영산강문화축제의 경우 상기 문화예술축제와는 또다른 성격의 역사문화축제 유형으로서 영산강변과 반남고분군, 나주시내 읍성권의 여러 장소에서 분산 개최해 왔다. 초창기 2년간은 영산강둔치에서, 이후 3년간은 나주읍성권 여러 장소에서 개최하여 매년 축제장소를 변경시켜 오고 있어 축제의 과도기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축제 프로그램 내용 면에서 보면,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주제관련 프로그램이 61.8%, 특히 지역농특산물 관련 금산 인삼축제, 양양 송이축제를 제외하면 6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영산강문화축제의 경우 평균 50.3%(2004년 첫해에만 59.5%였고 이후에는 47.2%~48.6%)로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에 비해 주제관련 프로그램 비중이 낮았다.

따라서 기존의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대비 경쟁력 있는 지역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제의 주제

및 소재, 예산규모, 개최 시기, 기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IV. 결론

1990년대 이후 지역축제가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고, 문제점 또한 많이 지적되었다. 축제의 정체성 모호, 축제 콘텐츠 부실, 축제 인프라 미비, 축제조직의 전문성 결여, 연계 관광상품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8]. 선행연구 대부분은 이러한 지역축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상 축제의 한 시점의 단편적인 측면에만 근거해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한 축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축제가 걸어온 과정에 대해서 시계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8년 5회째 운영해 오면서 축제 존속여부의 갈등단계에 부딪히고 있는 나주 영산강문화축제를 사례로 5년간의 축제 기획서와 평가서, 참여관찰,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축제 콘텐츠 변화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결과보다는 과정이해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특히,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산강문화축제는 5년간 진행되어 오면서 축제 주제, 시기, 기간, 장소,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가 매년 바뀌어 왔다. 즉, 아직 정착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들이 대부분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정착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대비 가장 큰 차이점은 축제 주제·소재의 불명확성이다. 이는 축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축제 고유의 이미지 전달에 실패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과거 번성했던 도시로서의 나주에 대한 향수를 축제를 통해서나마 되찾고 싶어하는 지역민들의 과도한 의욕에서 비롯된 만큼 매년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영산강문화'라는 광범위한 역사문화축제보다는 범위를 좁혀 나주만의 고유성을 확보한 주제나, 아니면 오히려 지역적 범위를 확대시켜 영암군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

여 이를테면 ‘영산강유역 마한문화제’와 같이 명확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축제의 주제·소재가 명확해지면 자연스럽게 주제관련 프로그램 구성이 용이해져 축제의 정체성 확립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대부분이 10월에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의 축제 기간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영산강문화축제가 동시기에 개최해서 시장 선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경쟁력 있는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제의 주제·소재, 시기, 기간, 장소, 프로그램 구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기존의 타 지역축제와의 차별화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지역 전문가를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도 정착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 기문사, 2008.

저 자 소 개

임 은 미(Eun Mi Lim)

정회원



- 1991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문학사)
- 2002년 3월 : (日本) 立教大學 觀光學硏究科(관광학석사)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관광학박사)

- 2005년 10월 ~ 2009년 8월: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2009년 9월 ~ 현재 : (주)여가누리 연구위원
- <관심분야> : 리조트·관광개발, 노스텔지어관광마케팅

참 고 문 헌

- [1] 이현식, 한국의 지역축제 지원정책 현황, 축제정책과 지역현황, 진인혜 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 [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2006.
-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2007.
- [4] <http://www.mcst.go.kr/web/cultureInfoCourt/localFestival/searchList.jsp> (2009년 전국 시·도별 지역축제 총괄표)
- [5]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축제 변화와 성과(1996~2005), 2007.
- [6] 영산강문화축제 홍보 브로셔 및 리플렛, 홈페이지 http://www.xn--939a200a76ds9fd1cf_5l1p.kr/, 나주 홈페이지 <http://www.naju.go.kr/01kr/>
- [7] 2004~2008 나주 영산강문화축제 기획서 및 평가서 관련 나주시 내부자료.
- [8] 서태양, 부숙진, 조태영, 세계화시대의 지역축제